

[시론]대전문화재단에 거는 기대

김선희 충남대학교수·TJB교향악단 악장

2009년 09월 23일 (수)

충청투데이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작년 이맘 때쯤 시작되어 가을 내내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드라마가 문득 떠오른다. 일명 '베바'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베토벤 바이러스'가 바로 그것인데,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기획공연물을 탄생시켰고 클래식을 대중에게 한결 가깝게 해 준 것으로 의미가 있었던 드라마였다. 특히 내용 중 한 마음으로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열정만큼은 아무리 칭찬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그러한 열정과 힘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 준 동인이 되는 것이라고 나는 지금도 굳게 믿는다.

문화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소도시와 시장 그리고 그를 위해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것이 드라마의 시발점인데 내가 흥미를 가졌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하고 많은 소재들 중 드라마의 소재로써 채택이 될 만큼 관과 예술단체가 함께 등장했다는 점도 반갑거니와, 어쩌면 향후 우리 문화예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의 한 모델을 제시해줬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 미래의 문화예술,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은 이런 지원과 화합위에서 공존할 수 있고 성공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더욱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물론 그 드라마 안에서도 핵심 갈등요소로 등장했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행정담당자와 예술가 간의 갈등이었다. 결코 공존하기 쉽지 않은 양자 사이의 갈등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노력과 자세, 그리고 그런 방안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바 그 중 하나가 바로 문화재단이 아닐까 한다.

최근 대전문화재단이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마치는 등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지역의 문화재단은 이미 이 시대 문화지원체계의 한 트렌드(trend)로 자리잡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8개 시·도에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이제 대전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은 문화도시 대전으로 한걸음 다가서는 사건이며, 또한 대전시 문화정책과 지원체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일종의 대변혁이다.


그동안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는 해당 공무원들이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맡아왔다. 그러나 그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전담부서의 한계로 인해 아쉬움을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다. 공무원의 순환직제 그리고 여러 유형의 일을 동시에 맡아야 하는 공무원 조직체계로써는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각종 문화정책 수립과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 비로소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앞으로는 보다 현장감 있는 문화정책과 지원체계가 갖추어질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예술가나 공연전시기획자가 아닌, 현장성과 이론적 토대를 갖춘 문화예술정책 전문가로 구성되어진 문화재단이 보다 큰 틀 내에서 이상적인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기대해본다.

아울러 바라건대, 문화재단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명색만의 지원조직이 아니라 지역 예술단체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군림하거나 지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의하고 논의함으로써 지역문화의 특성이 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단체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재단이 바로 지역 예술인과 소통이 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과 전담성을 바탕으로, 현장 예술인들과의 만남에서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각종 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이다. 열려 있는 문화예술 지원 체계야말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지원하는 문화재단의 본질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전문화재단의 설립을 계기로 대전지역 문화예술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베바의 성공처럼, 대전문화재단과 지역예술인들이 만들어 낼 수많은 결과물들이 대전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좋은 예술은 각박한 세상에 따뜻한 빛을 쬐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법이다.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